

보해 소줏값 3년째 동결...일새주 매출은 상승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대형 주류업체가 잇달아 소주 출고기를 올렸다.

보해양조, 1분기 대비 3분기 매출 5%p 증가 '가격 동결 효과'

임지선 대표 "지역 소비자·자영업자 상생위해 가격 유지 할 것"

인상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해양조가 3년째 소줏값을 동결하고 있다.

보해가 지역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깨끗하게 소줏값을 올리지 않는다는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매출도 소폭 상승했다.

29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일새주 3분기 매출이 지난 1분기 대비 5%p 가장 늘었다.

2분기 매출은 지난 5월 주류 업체들의 소줏값 인상에 따른 일새주 가수요가 발생해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격을 동결한 일새주 주류가 상대적으로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주 매출은 여름보다 겨울철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보다 3분기 매출이 늘어난 것은 '가격 동결 효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보해는 지난 5월 소주시장 7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소줏값을 올린 이후에도 일새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새주 출고기는 1016.9원,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같은 가격이다.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6.45%, 제주도의 한타산소주는 5.16% 가격을 인상했다. 6월에는 롯데주류까지 7.21% 가격을

올렸다.

일새주 매출 상승은 마트 등에서 파는 가정용 판매가 이끌었다. 일새주 출고기를 동결하다 보니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등 다른 소주보다 100원 안팎 차이가 난다. 식당에서도 출고기에 따른 업주들의 마진율이 높다.

소주는 알코올 주정 비율이 높을수록 원가가 높아진다. 보해와 달리 다른 경쟁사들은 제품 가격은 높이고 도수는 낮춰 이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류기업들은 대형 업체들의 소줏값 인상에 맞서 출고기를 동결하고 있다.

보해양조를 비롯해 대전·세종·충청지역의 맥키스컴퍼니, 부산·울산·경남의 무학, 제주소주 등 4곳이다.

모두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가 지역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나머지 기업들 역시 지역기업으로서 소줏값 동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선 대표는 "보해가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새주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마트 등 가정용 판매가 증가했다"며 "지역민의 사랑 높이고 도수는 낮춰 이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기아차, 3세대 K5 전면부

'호랑이 코→얼굴'로 변신

기아차, K5 렌더링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인 3세대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29일 최초 공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기존 K5의 역수준 디자인을 뛰어넘기 위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한 번만 봐도 뇌리에 박히는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

신형 K5는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요소들의 결합을 통한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이다. 또한 더 두꺼워진 측면 유리 몰딩을 더 짙어진 트렁크 리드까지 확장해 과감하고 날렵해진 패스트백 스타일로 진화했다. 전·후면의 조형과 연계된 강렬한 느낌의 라이팅 스트러처 등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특히 전면부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리됐던 기존 K5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배치 형식을 모두 허물고, 그릴과 헤드램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타이거 노즈'에서 진화한 '타이거 페이스'를 선보였다.

타이거 페이스는 기아차의 차세대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로 향후 출시되는 기아 차 신차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심장박동을 형상화한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등을 적용해 생동감과 역동성을 증폭시켰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미래지향성'을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대시보드부터 문까지 연결되며 차량 내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수평적 가시성을 통한 넓은 실내 공간감과 개방감, 클러스터와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까지 끊김 없이 연결되는 입체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한 하이테크하고 미래적인 이미지, 운전자를 감싸는 비대칭 형태의 운전석 레이아웃 등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신형 K5를 오는 12월 국내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할 계획이다.

뉴스

8월말 은행 연체율 두달 연속 상승

원화대출 연체율 0.50%

전월말비 0.05%p 상승

주담대도 상승세 전환

국내 은행의 8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전월 보합세를 보였던 주택담보 대출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8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50%로 지난 달(0.45%)보다 0.05%p(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6월말 0.41%에서 7월말 0.45%로 상승한 데 이어 두달 연속 올랐다. 전년동월말대비 보면 지난해 8월 말(0.61%)보다는 0.11%p 하락한 수치다.

8월중 연체채권 잔액(8조3000억원)은 9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 발생액(1조6000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7000억원)를 넘어선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전월말(0.29%)보다 0.03%p 올랐다. 전월말(0.20%) 보합이던 주담대 연체율(0.23%)은

0.02%p 올라 상승 전환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0.54%)은 전월말(0.49%)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0.65%로 전월말(0.59%)보다 0.06%p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전월말(0.36%)보다 0.04%p 오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40%) 역시 두달 연속 오름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4%)은 전월말(0.57%)보다 0.08%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68%)은 전월말(0.67%)보다 0.002%p 올랐다. 전년동월말(1.80%)보다 1.13%p 하락한 수치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해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으로 연체율이 4월말 1.7%로 상승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해 12월 중 일부 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0.73%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을 지속해서 살피고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일랜드 공기청정 살균기 노바이러스 출시

2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에서 열린 청정 살균기 '노바이러스(Noværus)'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노바이러스는 현재 대한민국 1,000여 대 구입차와 450여 개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공식 공기살균기로 사용 중이다.

제주항공, 12월부터 무안~광 노선 매일 운항

내년 3월 7일까지

제주항공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무안에서 겨울철 인기 휴양지인 광 노선에 매일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

운항 일정은 무안에서 오전 8시 30분(이하 현지시간, 화요일은 오

전 7시 30분) 출발해 광에는 오후 1시 40분 도착한다. 광에서는 오후 3시 40분 출발해 무안에 오후 7시 2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무안-광 노선 운항으로 인천 및 부산 등 여러 도에서 출발이 가능해져 여행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플라이백 플러스(FLYBAG+)' 운임을 선택하면 수하물 2개를 맡길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수수료없이 여행일정을 바꿀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